

# 북미 정상,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열어둬

### 7월 판문점 또는 9월 유엔총회 유력 거론...70년 만에 역사적 만남 '4개항' 합의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명기했다.

70년 만에 북미 정상이 얼굴을 직접 맞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논의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후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은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의문에 포함된 '한반도의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는 내용은 향후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다.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종전선언 가능성'은 향후 비핵화 성과에 따른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취해지는 일종의 안전보장 조치로 해석돼 왔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합의문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과 관련된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종전이 곧 될 것"이라고 말해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7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선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르면 다음주 북한 고위급 당국자들과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당장 사실상 비핵화를 시작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즉시 폐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세계가 잠재적인 핵 재앙에서 크게 한 발 물러서게 됐다"면서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도, 핵 실험도, 핵 연구도 없다"고 밝혔다.

(The World has taken a big step back from potential Nuclear catastrophe! No more rocket launches, nuclear testing or research!)

송세준 기자 21ssj@

# 부품협력업체가 강한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 산업부·KIAT, 자동차 부품산업 위기대응 방안 논의

자동차 산업의 성장 둔화와 미래차 위주의 글로벌 사업재편 등의 여파로 한국GM 군산 공장이 지난달 폐쇄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논의의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김학도, 이하 KIAT)은 12일 서울 강남 파크루안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재·부품 밸류UP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당면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과 김학도 KIAT원장, 자동차 부품기업 5개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한국GM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관련 부품협력업체들이 존재 위기에 내몰리는데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역시 부품업체들의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지각변동이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고속 성장이 예견되는 스마트카, 그린카 분야 등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미래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기술력 있는 완성차 업체와 2·3차

협력업체간 공생하는 혁신지향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혁신적 서비스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혁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건강한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미래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과 연구개발(R&D) 여건 개선 등 관련 제도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와 KIAT는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약 25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해 자동차 부품협력 업체의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도 개최한다.

김 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자동차 산업이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중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며 "자동차 부품업계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12일 서울 강남 파크루안에서 열린 '소재·부품 밸류UP 포럼'에서 김학도 KIAT원장(뒷줄 왼쪽 두 번째)과 최남호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뒷줄 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자동차 부품산업을 살리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 한중산단 조성 협의회...시범사업 등 실질적 협력 시동

### 중국 염성서 산업부·중 상무부 차관급 협의회 열어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은규)는 12일 중국 염성에서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장과 중국 가오옌(高燕)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중산단 차관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로서,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4차 산업혁명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중 양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한중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장기협력과제 발굴 공동연구 추진 등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합의했으며, 시범사업의 추가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 앞서 2015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MOU를 근거로 한중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공동으로 실무그룹(W/G)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광국 기자 kimgg@

### 한국표준협회, 명품창출CEO포럼

한국표준협회(회장 이상진)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이 후원하는 명품창출CEO포럼이 12일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포럼회원과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태선 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명품과 명품기업이 다시 정의되어야 할 때"라며 "새로이 정의된 명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위해 포럼의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제공함으로써 명품창출포럼이 회원사의 명품창출을 지원하는 강력한 조력자가 되도록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명품특강은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불사조기업의 5가지 명품 DNA' 주제로 진행했다.

정형석 기자

### 1면서 계속 **갑을매달, 전선소재 SCR사업 '손 댄다'**

갑을매달 관계자는 "SCR 설비를 LS전선아시아에 매각기로 했다"며 "수년 전부터 SCR비율을 줄이고, JCR 중심으로 전선소재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설비 매각을 통해 유휴설비를 처분하고,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LS전선아시아도 이와 관련 지난 4월 약 100억 원을 들여 베트남 자회사 LS-VINA의 구리 선재 생산 규모를 연간 2만7000t 규모에서 약 3.7배 확대한 10만 규모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LS전선아시아는 전선 판매의 증가로 기

존 설비만으로는 자체 구리 선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부족한양은 외부에서

구입해 왔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또 생산력을 확대함으로써, 자체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양에 대해서는 외부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LS전선아시아 관계자는 "갑을매달의 SCR 설비를 인수하고, 이를 활용해 베트남 법인의 전선소재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LS전선은 이번 설비 증설로 베트남 법인의 자체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갑을매달 전선사업부 등 국내기업 베트남 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접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SURGEATER 서지이터

본 제품은 뭉쳐진 금속이 아닌 **펼쳐진 금속 형태인 망형접지판의 구조로써** 접지전극이 땅속에서 보다 넓은 면적에 넓게 분포됨으로써 접지효과를 극대화한 망형접지 전극인 서지이터를 개발하여 접지공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특징

- 1 최소 재료로 최대 접촉면적을 만드는 구조
- 2 망형구조로 대지접촉면적을 넓게 분포
- 3 편리하고 쉬운 시공과 비용 절대 감소
- 4 친환경 제품으로 화학제품 미사용

### 특허증



### 주요생산물목



**리운드형**  
탄소접지봉대용  
규격(mm)  
600×1200×t1.0



**가로등형**  
규격(mm)  
300×300×t0.5  
400×400×t0.5  
500×500×t0.5  
600×600×t0.5



**대용량접지형**  
1종, 2종, 접지용  
특별 3종  
규격(mm)  
600×10000×t0.5  
600×20000×t0.5

### 시공사례

